

K-글로벌 백신허브·폐광대체 산업 점검

화순, 성장동력·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회

박철원 부군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화순군이 최근 2022년 부서별 균형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고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화순군은 박철원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균형 주요 현안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부임한 박철원 부군수는 보고회를 통해 균형 전반을 빠르게 파악하고 원활한 균형 수행을 위해 보고 현안을 점검했다.

11일 보고회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일자리정책실, 농업정책과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점검, 논의된 현안 사업은 ▲4개 지구의 수해 복구개선 사업 ▲농촌협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최초로 120만 원을 지급할 농어민 공익수당 ▲부서별 코로나 19 대응 상황 등이다.

지난해 화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도농 지역을 연계해 생활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문화 등 농촌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그동안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100% 인상, 1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오는 4월 전국 최초로 12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보고회에서는 현안 사업과 함께 백신·바이오, 폐광 대체산업 발굴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화순군은 정부의 K-글로벌 허브와 전략 계획과 연계해 발굴, 국비에 대거 반영된 백신·바이오 분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화순백신산업특구를 K-글로벌 백신허브와 K-바이오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구축은 물론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과 기능 확대 사업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도와 함께 면역치료 중심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정부 지정)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정 현안을 점검한 박철원 부군수는 “화순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실현 가능성이 많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대체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농촌협약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13일까지 이어질 보고회에서는 농·수산업 분야의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운영,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 단지 조성,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화순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인구 감소 대응 시책과 청년정책, 문화관광 기반 확충과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철원 부군수는 “보고회에서 점검한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명사·사고이월 사업과 예산 신속 집행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지난 11일 열린 보고회에서 박철원 화순 부군수(가운데)가 건설과 현안 사업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장흥, 농업생산기반 정비 103억 투입

배수개선사업 등... 영농편의·소득향상 목표

장흥군이 올해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군민들이 영농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세부사업은 ▲배수개선사업 16억원 ▲저수지 보강 및 개보수사업 31억원 ▲대구형경리정리,발기반사업

7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홍수로구조물화사업 1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26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기타 12억원 등이다.

현재 농경지침수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관산 산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난 2020년 착공해 현재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예정이다.

가뭄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를 확보하기 위한 저수지 사업으로 용산여동저수지 및 장평여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올해 완공 예정이다. 장평 우산저수지 신설사업은 제방축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안양 비동저수지, 관산 부평저수지, 장평 정용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올해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발주할 계획이다.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흥 영정지구 대구형경리정리 시설개량사업은 올해 공사에 들어간다.

장흥읍 간산리와 평화리 일원의 한들지구 대구형경리정리 시설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덕 평촌지구 발기반정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하반기에 발주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기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침수 예방과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재해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국내 최초 목재 쪽 염색기술 특허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국내 최초로 목재에 쪽(Indigo)을 물들이는 천연염색기술 특허를 출원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단은 목재를 쪽으로 염색하기 전 ‘산처리’ (산을 이용한 화학처리의 총칭)를 하고 염색 후 중화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리를 통해 국내 최초 목재 천연염색기법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쪽’은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에서 추출한 청색 빛의 환원성 천연염료로 청바지 등 섬유 염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료다.

재단에 따르면 환원성 염료인 쪽을 피염물에 염색하기 위해서는 잣물 등 알칼리성 물질과 환원제를 첨가 또는 발효·환원을 시켜야 한다.

특히 염색 후에는 알칼리성 물질을 제거해야 염색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쪽의 이러한 특성으로 섬유 염료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목재의 경우 질 또는 염색 후 알칼리성 물질 제거가 쉽지

않아 천연염색과는 거리가 먼 소재로 치부해왔다.

재단은 이번 목재 염색기술 특허 출원을 통해 나주의 전통 쪽 염색 위상 제고와 함께 상품 다양화, 산업 인프라 확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국 재단연구사업팀장은 “쪽은 섬유 염색뿐만 아니라 미용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특허 출원한 목재 쪽 염색기술은 친환경 목재 보급과 나주가 자랑하는 천연염색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종권 기자



장흥고~코아루APT 설 연휴 임시개통

장흥군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장흥고-코아루APT 간 관계도로도 개설공사 구간을 임시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통행과 귀성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결정됐다.

임시개통 구간은 장흥고등학교부터 코

아루APT까지로, 기간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해당 공사는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연장 670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3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성, 명절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

온·오프라인 40여개 우수 품목 선봬

장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지역 농가와 식품업체의 판로를 넓히고 장성 로컬푸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총 2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성군은 HACCP, GAP, 도지사 인증 등을 획득한 40여개 우수 품목을 선별하고, 책자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또

장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도 연다. 지난 4일 농협하나로클럽 성남점을 시작으로 광주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 장성 남면 로컬푸드직매장, 백양사 휴게소 행복장터 등에서 행사를 갖고, 설 명절 전까지 소비자와 만날 계획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담양군산림조합, 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 쾌척

(재)담양장학회(이사장 최형식)는 최근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이 재단을 방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진호 조합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담양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산림조합은 1962년 설립 이래 산림자원의 경영 지도와 육성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해 누적금액이 5,200만원에 이르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 회진면, 사랑의 쌀 30포 전달

장흥군 회진면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이웃돕기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김용현, 김형상, 이시우씨 등 모두 5곳의 단체와 개인이 참석해 사랑의 쌀 20kg 30포를 기탁했다.

기탁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쌀을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회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형재·강현갑 공동위원장은 “기탁해 준 품목을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사용하고, 더불어 회진면 지역 복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여성단체협의회, 인재육성기금·성금 기탁

나주시는 최근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재육성기금 100만원과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연숙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2022년 새해 시작점에서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회원들과 성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지역 분위기와 시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김장 봉사와 성금 기부,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회원들의 온정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